

금호산업 수의계약 추진 ... 매각가 7000억이나 더 깎느냐

금호아시아나 VS 채권단 기싸움 치열할 듯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호산업 인수전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 채권단' 구도로 바뀌게 됐다. 가격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금호산업 매각의 성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은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입찰가로 6007억원을 제시하면서 채권단의 최소 기대치인 7000억~8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채권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일제강습 회의를 열어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

았다.

금호산업의 두차례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이 2조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6000억원에 팔 수는 없다는 게 채권단의 요지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5월7일 금호산업 전체 주주총회를 열고 공개 매각 유찰을 최종 확정지은 뒤 박 회장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협상은 채권단 보유 전체 지분(57.1%)이 아닌 지분 50%를 놓고 진행된다. 박 회장이 채권단 보유 금호산업 지분 57.1%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만약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 박 회장은 호반건설이 써낸 가격에 맞춰 지분을 사들일

수 있었다. 호반건설 응찰액의 1주당 가격으로 '전체 지분율 50%+1주'를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5300억원 안팎이면 금호산업 인수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호반건설의 6007억원 을 거부한 만큼, 매각금액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아시아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된 액수만 3조원에 이르는 만큼 지분 57.1%를 최소한 8000억원 은 받고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채권단은 박 회장에 최소 7000억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박 회장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33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바 있다.

그럼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생한 만큼, 채권단이 제안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이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박 회장에 금호산업을 직접 매각하게 된 만큼 박 회장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지만 낮은 가격만 제시하면 채권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호산업 주가는 전날 매각 유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 종가 기준 전일보다 3050원(13.35%) 내린 1만9800원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2.63 (-5.04) ▲ 금리 (국고채 3년) 1.84% (+0.01)
- ▶ 코스닥 695.69 (-1.10) ▼ 환율 (USD) 1068.60원 (-1.40)

광주 아파트 올 공시가격 7.1% 상승

대구·제주·경북 다음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1%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전남은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3.1% 상승'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1% 올라 전년도 상승률 4.7%를 뛰어넘었다. 대구(12.0%)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광주의 상승률은 제주(9.4%)와 경북(7.7%) 다음이었다.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처럼 오른 이유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등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공동주택 수는 38만3642호로 평균가격은 1억381만원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0.4% 감소했지만 올해 0.3% 상승했다. 하지만 도단위 지역 중 전북(-0.4%)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아 타지역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

남의 경우 나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수요증가로 상승했으나 남양혁신도시, 신대택지개발지구 등 공급증가 등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순천(-1.1%)과 광양(-0.8%)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하락세가 가장 큰 곳으로 뿔뿔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광주가 1.89%, 전남은 3.33%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광주지역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 5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54억 7000만원, 최저가는 남구 신장동 한 주택으로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가의 이 주택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 자택으로 현재는 금호그룹 법인명의로 돼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빛가람지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9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빛가람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빛가람지점은 지난해 1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한전지점을 개설한 이후 두 번째 개설된 점포다. 나주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빛가람지점은 이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및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 유치 등의 중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한 행장은 "광주·전남지역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혁신도시 입주 기관 및 입주민을 위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9일 나주혁신도시에 문을 연 광주은행 빛가람지점에서 김한 광주은행장(왼쪽에서 7번째)과 임직원, 내빈들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중기제품 구매도 혁신도시 효과 '톡톡'

지난해 나주 이전기관 구매로 7조3000억 증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제품 구매에 나서면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총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표비율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꼽혔다.

29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광주·전남 53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2조3000억원(78.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40개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5조5000억에 비해 7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도

전국 평균(70.0%)보다 8.6%포인트 높은 78.6%로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우수한 편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표비율이 우수한 기관은 나주시(98.7%), 김대중컨벤션센터(97.7%), 완도군(97.6%), 장흥군(97.1%), 광주시도시철도공사(96.7%) 순이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 목표를 총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잡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구매비율 기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나주시가 1위, 완도군이 4위를 차지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전국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5조5000억)이 2위, 전남도(2.8조5000억)가 5위에 올랐다.

류봉걸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입찰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해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공공시장을 확보하게 된 만큼, 앞으로 공공구매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커다란 성장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효성,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주가 급등

효성이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은 이날 종가 기준 전일보다 14.81% 오른 12만 4000원을 기록했다. 효성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한 222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8000억원 규모이며 당기순이익은 11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증권사들은 효성이 기대치를 크게 웃

도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연간 이익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종전 9만6000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대신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다.

윤재성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판덱스 판매 호조와 플라케톤의 성장성, 산업자재와 중공업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 268개 사업소 설비 안전진단 완료

한국전력은 29일 정부의 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시행한 전력분야 설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1일 시행, 30일 종료되는 안전대진단은 정부 관련부처와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를 통한 합동 점검을 비롯, 한전 안전담당 주요간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이 기간 동안 본사에 '전력분야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268개

사업소에 '안전진단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송전선로 3만2757c-km와 변전소 805개소, 배전선로 9683회선 등 전국에 걸쳐미처 점검 연결된 방대한 전력공급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또 주전선기·사버 513개,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SCADA) 818대 등 통신보안 설비와 대형공사업의 전력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도 완료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인천총판 | 010-9087-4859
- 강원총판 | 010-5792-8872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전남총판 | 010-9087-4859
- 제주총판 | 010-2324-952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리중

* 마스코트 제품 및 로고타입의 취급권을 위 총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리, 권리형, 전자담배 등 달레스메인 자원을 받으신 모든 경우)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고령적 결혼정보회사**
광주서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졸업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이다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코전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전주지사